

“농기계 AX, 부족한 노동력 해결”

강연

감병우 대동 전무

“자율주행보다 자율작업 핵심”



대동그룹이 노동력 문제 해결, 생산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AI 트랙터, 소형 트랙터 전동화에 집중하고 있다.

1947년 창업, 내년이면 창업 80주년을 맞는 국내의 대표적인 농기계회사가 100년을 향해 달려가며 AX(AI전환)와 GX(녹색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대동 개발부문장 감병우 전무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글로벌 농기계 시장에서 AX는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을 높이는게 핵심”이라며 “AX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 전무는 “농업은 작업 종류도 다양하고 계절이나 환경에 변수가 많다. 그만큼 학습시켜야 할 데이터가 많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작물의 변화도 많다”면서 “대동의 AI트랙터는 현재 200대 정도를 양산해 전국의 농업 현장에서 쓰이며 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업분야에선 ‘자율주행’보다 ‘자율작업’이 핵심이다. AI가 최적의 자율작업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실제 대동이 선보인 AI 트랙터는 비전 AI가 작업 환경·작업기·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트랙터로, 현재 Level 4 수준의 무인 자율 작업에 특화해 있다.

과거의 자율작업 트랙터는 사람이 위도, 경도 등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해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통해 작업기 자동 인식, 경작지 자동 인식, 장애물 인식, 비상 정지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감 전무는 “경작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빈곳을 빠짐없이 작업하는 것이다. 현재는 벼 농사를 중심으로 트랙터가 고도화 돼 있고 밀, 콩 등으로 자율작업이 가능하도록 작물들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데이터 기반으로 물류 효율화”

강연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AI가 예측·판단해 물류 합리화”



“디지털 전환(DX)은 사람이 결정하고 시스템이 처리한다면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AI)이 예측하고 맥락을 판단해 시스템이 실행하는 구조다. 데이터를 통해 AI의 역량을 빌려 물류를 더욱 합리화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AX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개최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머스가 개인화·편안화되고 배송 속도 경쟁이 심화하면서 복잡해진 물류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 AX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커머스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자사몰, 소셜미디어를 거쳐 AI 기반 에이전트 커머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매 방식은 달라졌지만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물류의 역할은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과 형태가 바뀌더라도 누군가는 물건을 갖다줘야 한다”며 “물류가 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돼 있었고 이것이 실행됐기 때문에 커머스도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확대로 주문이 개인화되면서 물류의 복잡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아워박스는 하루에 보통 20만건의 주문을 소화한다”며 “한 센터에서 시스템 없이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500건을 넘기기 어렵고, 그 이상이 되면 휴먼 에러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워박스는 주문관리시스템(OMS), 창고관리시스템(WMS) 등을 통합한 자체 물류 플랫폼 ‘샵메이터’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판매 플랫폼과 라스트마일 배송 플랫폼, 택배사 등을 연결해 주문부터 출고·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와 물동량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자율주행 트럭, 화물운송망으로”

강연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韓 5300km·美 7000km 실제 화물운송”



“2029년에는 전국 단위 자율주행 운송망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자율주행차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 화물운송망에 대규모로 투입·운영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실제 화물운송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마스오토는 대형트럭 자율주행 기업이다. 라이다(LiDAR)와 정밀지도 대신 카메라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는 ‘테슬라식 자율주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10대, 미국에서 5대의 자율주행 트럭으로 실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노선은 총 5300km로 이 가운데 하루 약 1000km를 운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자율주행 승인도 받았다. 미국에서는 LA 롬비치항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LX판토스와 협력한 동부에서 서부로 돌아가는 노선까지 총 7000km 규모다.

장거리 운행의 핵심은 정밀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이다. 노 부대표는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실시간 인식해 신규 지역 적용이 쉽다”며 “지난 2023년 미국 진출 당시 한국에서 학습한 AI의 미국 주행에 의문이 많았지만 실제 운행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현재 일반 트럭 250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1000대로 늘려 향후 10억km급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의 핵심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꼽았다. 노 부대표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당 3억5000만~5억원이 드는 구조로는 상용화가 어렵다”며 “마스오토는 대당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

“물류 혁신, 국가 경쟁력 좌우”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지속가능한 물류 솔루션, 미래 핵심 동력”



‘AX가 이끄는 혁신의 물류 모빌리티’라는 주제에서 보듯 이번 포럼의 화두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 관점에서 물류의 의미를 잠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살펴보면 핵 사찰 등 여러 명분이 거론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물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 생명선을 마비시키려는 이란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만들어낸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과 지중해 해로를 기반으로 제국에 걸맞은 물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운하로 연결한 중국의 내륙 물류 체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처럼 역대 강대국들은 육·해·공 인프라를 정비하고 물류의 이동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물류와 이동성 강화는 단순히 해당 산업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이 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물류 모빌리티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운영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AI를 통해 더욱 똑똑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율주행과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은 비효율을 줄이고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원관희 기자 wkh@

“AI·GX 기반 물류·모빌리티 도약”

축사

임문영 국회의원

“정책·제도적 지원 힘쓸 것”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녹색 전환(GX)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논의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지식의 혁신 전략을 비롯해 물류의 변화와 혁신, 농업 모빌리티의 AI, GX, 뉴노멀에 대응하는 물류 그리고 자율주행이 바꾸는 우리 물류 산업의 미래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산업 전환은 이제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AI와 GX를 기반으로 우리 물류·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은 기자



“기술 발전에 맞춰 제도 바뀌어야”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새 기술 시험 위해 복잡한 절차 개선 필요”



물류와 모빌리티는 우리 경제와 일상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기반이자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입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전하고, 소상공인의 하루 장사를 뒷받침하는 일도 이 산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포럼의 주제인 ‘AX, 인공지능 전환과 GX, 녹색전환’은 이러한 기반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과제입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물동량을 예측하고 이동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면 불필요한 운행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변화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기술을 도입하고 친환경 운송체계로 바꾸는 데 따르는 비용과 인력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현장엔 불필요한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물류와 모빌리티가 우선순위에 밀린 감도 없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험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과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듣겠습니다. 물류·모빌리티 분야는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많은 협력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 기자



▲한미일, 북극권 해양·경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예정
▲中, 기준금리 1년물 LPR 3.0% 5년물 3.5% 16개월째 동결
/사진 뉴시스

▲미군, 카리브해 마약 밀매 의심 선박 격침…4명 사망
▲중국 쓰촨성서 폭우 후 산사태로 5명 사망·실종
중

▲러시아 총선, 푸틴 집권당 70% 이상 의석 확보할 듯
▲獨베를린 돌봄 시설에서 화재…1명 죽고 25명 부상